개막 '코앞' 주포 나성범, 또 부상 날벼락

햄스트링 부상, 2주후 재검진…'2년 연속 개막전 불발'

이범호 감독, 라인업 등 전면 재수정, 시즌 초반 변수로

KIA타이거즈 나성범이 지난 17일 열린 kt와의 시범경기에서 3회말 최형우의 안타에 2루를 돌아 3루로 달리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주장 나성범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올 정규리그 개막 엔트리 합류가 어려워졌다.

KIA 구단은 지난 18일 "나성범이 전남대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진 후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나성범은 2주 후 재검진할 예정이며 복귀 시점은 그 이후에나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성범은 지난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wiz와의 시범경기에서 3회말 주루플레이 도중 우측 허벅지에 불편함을 호소해 곧바로 검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KIA는 오는 23일 키움과의 광주 개막전은 물론 당분간 나성범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KIA로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규시즌 초반부터 부상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

KIA는 2023시즌 도중 나성범과 박찬호, 최형우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가을 야구'에서 밀린 악몽을 가지고 있다. 나성범은 지난해 부상 탓에 5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다.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종아리 부상으로 6월께 복귀했고, 팀이 가을야구 경쟁에 한창이던 9월에는 오른쪽 허벅지 근육 파열로 시즌 아웃됐다.

2022년 KIA로 이적한 나성범은 핵심타선이다. 올해 시범경기 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3, 5안타, 1홈런, 1타점을 기록, 점차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시즌 큰 기대를 모았었다.

우익수 붙박이인 나성범이 빠진 KIA는 당장 수비라인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시범경기에서 우익수로 출전했던 이창진이나 최원준, 박정우 등이 백업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또,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1루수로 전향한 이우성도 다시 외야수로 자리를 옮겨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공격 부분은 나성범을 대체할 만한 거포가 없어 KIA로써는 큰 고민을 안게 됐다.

KIA가 시즌 초반 나성범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에 따라 올 시즌 성적이 좌우될 전망이다.

/주홍철 기자

박민·황대인·김석환 '펑펑'…화끈한 피날레

KIA, 시범경기 최종전 삼성에 9대3 승리

19일 열린 삼성과의 마지막 시범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KIA 선수단이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시범경기 6위로 정규시즌을 위한 준비를 모두 끝마쳤다.

KIA는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리그 시범경기 10차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9대3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KIA는 시범경기 전적 4승6패를 기록하며 공동 6위로 시범경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KIA 선발 투수 네일은 5이닝 4피안타 2볼넷 4삼진 3실점(0자책) 기록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 14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네일은 이날 빼어난 피칭을 펼치며 홈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네일은 1회 안타와 볼넷 등을 허용하며 흔들렸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 실점하지 않았다. 2회를 공 8개로 이닝을 정리하고, 3회도 삼진 2개를 솎아내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4회에는 안타와 볼넷으로 연속 출루를 허용했으나 후속타자들을 모두 범타로 처리해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였다. 네일은 5회도 세 타자를 깔끔하게 잡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불펜진도 완벽 투구로 정규리그 준비를 끝마쳤다.

네일에 이어 6회에 마운드에 오른 황동하(1.2이닝)와 곽도규(0.1이닝), 장현식(1이닝), 전상현(1이닝)은 9회까지 무안타로 삼성 타선을 완전 봉쇄했다.

전날 4안타에 그쳤던 팀 타선은 이날 16안타를 때리며 삼성 마운드를 두들겼다. 1회에 3점을 내준 KIA는 선두 타자 안타에 이어 박민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쐈다. 이어 김선빈의 안타와 이창진의 적시타로 3대3 균형을 이뤘다.

2회에는 김규성과 김선빈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 상황에서 황대인의 2타점 적시타로 5-3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앞서나갔다. 6회 박정우와 박민의 연속안타에 이은 황대인의 스리런으로 8대3으로 달아났다. KIA는 7회 김석환의 쐐기포를 더해 9대3으로 승리하며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한편, KIA는 오는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과 2024 KBO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주홍철 기자

대형 호걸이랑 추억 '찰칵'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EV SPACE' 새단장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4 시즌부터 새롭게 바뀐 'EV SPACE(Expecting Victory SPACE)'의 모습을 팬들에게 공개한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5출입구 앞에 설치되는 높이 6.5m의 대형 호걸이 조형물(에어벌룬)은 야구공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해 야구단의 마스코트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더했다. (사진)

특히 호연이와 올 시즌부터 새롭게 합류한 마스코트 하랑이의 등신대가 추가돼 팬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라인업 보드에 강렬한 느낌의 호피 무늬가 추가돼 팬들에게 승리 기대감을 안겨줄 예정이다.

라인업 보드에는 경기 1시간 전 선발 출전 선수들의 브로마이드가 게시된다.

EV 스페이스는 시범경기 동안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23일 개막에 맞춰 정식 운영된다.

/주홍철 기자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며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공식 훈련전 심경 밝힐 듯

'탁구게이트' 중심에 섰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여느 때처럼 밝은 표정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이강인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전날 300명이 넘는 팬과 취재진이 몰렸던 손흥민(토트넘)의 입국 현장과는 온도 차는 있었지만 이날 역시 1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굳은 표정으로 입국한 손흥민과 달리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나선 이강인은 문 앞에 잠시 멈춰 선 뒤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양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캡틴 손흥민에게 대들어 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대표팀 내 조직력 붕괴의 원흉으로 지목돼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위축됐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환히 웃던 이강인은 팬들의 선물을 받고 여유롭게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강인은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경기도 고양의 대표팀 숙소로 이동했으며, 20일 공식 훈련 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황선홍 감독(오른쪽)과 손흥민이 19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을 앞두고 열린 비공개 훈련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황선홍호 합류한 손흥민 태국戰 앞두고 첫 훈련 소화

손흥민(토트넘)이 태국전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첫 훈련을 소화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9일 오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훈련했다.

손흥민을 비롯해 황인범(즈베즈다), 김민재(뮌헨), 홍현석(헨트), 조규성(미트윌란) 등 전날 귀국한 유럽파 선수 5명이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22명의 태극전사가 훈련을 진행했다.

손흥민과 조규성, 황인범, 홍현석 그리고 전날 진행된 첫 훈련부터 합류한 백승호(버밍엄시티)는 지난 주말 소속팀 경기에서 쌓인 피로를 푸는 회복 훈련을 진행했다.

최근 뮌헨에서 주전 자리를 에릭 다이어에게 빼앗겨 벤치 신세가 된 김민재와 K리거 등 17명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다.

이들은 황 감독의 지도 아래 1시간 동안 패스, 슈팅 훈련, 전술훈련 등을 진행했다.

'탁구게이트'의 주인공인 이강인과 손흥민은 다시 붉은 유니폼을 입고 호흡을 맞춰야 한다. /연합뉴스

'전통적 위엄과 진보적 기술'…축구대표팀 유니폼 공개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한국 축구대표팀의 새 유니폼이 공개됐다. 나이키는 19일 한국 축구대표팀의 유니폼을 공개하며 "한국 전통 예술에서 기인한 위엄과 나이키의 진보적인 기술을 담았다"고 발표했다. 나이키는 한국의 전통 예술과 장인정신에서 착안한 디자인이 새로운 세대에게 축구에 대한 빛나는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정 유니폼(왼쪽)과 홈 유니폼. 〈나이키 제공〉